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3. Vol. 18, No. 1, 203 - 217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모화의 매개효과

조 양 선
삼육대학교
상담교육학과

손 솔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부모화 그리고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부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모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녀 대학생 262명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만 18세에서 28세 사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검사는 Parker의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 부모화 질문지 그리고 LaGreca의 사회불안 척도였다. 상관분석 결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방식 모두 사회불안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부모양육방식은 사회불안 요인 중에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었고,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부모화와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화도 사회불안과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화는 사회불안 요인 중에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었다. 부모화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사회불안 사이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사회성과 관련된 부모의 역할에 대한 Adler의 개인심리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주요어: 부모양육방식, 부모화, 사회성, 사회불안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경현,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화: 02) 3399-1676 E-mail: khsuh@syu.ac.kr

www.kci.go.kr

사회성은 개인의 성공은 물론 행복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Goleman(2006)은 정서지능 외에도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사회관계를 맺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사회성도 능력으로 계발되고 훈련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Romanczyk, White, & Gillis, 2005).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지적 능력과 학업의 향상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사회성의 발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인이 사회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회적 관계에서 불안을 경험한다. 그런 사회불안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Hullu, Jong, Nauta, & Sportel, 2011; Last, Hersen, Kazdin, Orvaschel, & Perrin, 1991; Stein, Walker, & Forde, 1996).

그런 이유에서 사회불안은 임상적으로 주목 받는 문제이다. 임상적으로 사회불안은 불안장애 중에 사회공포증으로 구분된다.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는 사회공포증을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 상황에 대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 즉 개인이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타인에 의해 주시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개인들은 자신들이 수치스럽거나 당혹스런 방식으로 행동할까봐 (또는 불안 증상을 보일까 봐) 두려워하는 장애”로 표현되어 있다. 아동기부터 보일 수 있는 이런 사회불안을 적절하게 중재하지 못하면 개인의 삶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Albano & Detweiler, 2001).

그렇다면 사회불안은 언제부터 형성되는 것일까? 인간은 태어나 부모와 처음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개인심리학의 시조인 Adler(1956)는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취약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돌봄이 없이 생존하기 힘들어 유아기부터 본능적으로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적절하지 못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부적절한 느낌, 즉 불안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를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하게 만들어 대인관계에서 역기능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된 바 있다(서경현, 2012; 서경현, 유제민, 안경미, 2008; 허재홍, 2006; 허재홍, 조용래, 2005; Bruch, Heimberg, Berger, & Collins, 1989; Parker, 1979).

부모양육방식이 사회불안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오경자와 양윤란(2003)의 연구에서 부모양육방식이 사회불안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양육방식, 타인시선을 의식한 양육태도, 그리고 부모의 비사교성을 하위변인으로 하였다. 다른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특정한 부모양육방식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Parker(1979)의 연구와 Arrindell 등(198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불안이나 대인관계 부적응과 관계가 있는 것을 나타났다. 한편 Bruch 등(1989)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대인관계는 물론 행동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할 경우 사회적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추후 연구(Bruch & Heimberg, 1994)에서 재차 검증되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방

www.kci.go.kr

식으로 자주 연구되어 온 것은 돌봄 혹은 애정 없는 양육방식과 과보호 혹은 과잉간섭이다(문경주, 오경자, 2002; 서경현 외, 2008; Parker, 1979).

사회적 관심이 인간의 행동의 중요한 동기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개인심리학을 주창한 Adler (1964)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사회성 문제를 중재하고자 한다면 사회적 관심의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다. Adler는 만약 부모가 방임하거나 과보호하며 자녀를 양육할 경우 성장하여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와 반대로 부모의 애정 어린 양육은 자녀가 의식화된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게 한다고 보았다.

개인심리학에서는 부모로부터 과보호 받은 아동이 신경증적 경향성을 키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한다(Feist & Feist, 2008). Adler(1964)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과보호되며 성장하면 건전한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키지 못해 이기적이 되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부모가 과잉 간섭하는 양육방식이 자녀의 불안, 우유부단 그리고 인내심 부족을 키운다고 생각했으며, 그렇게 성장할 경우 언제나 세상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애성 성격장애나 히스테리성 성격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런 저변에는 과도한 열등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Adler의 개인심리학에서는 부모의 애정 어린 돌봄의 결핍, 즉 방임 그리고 반대의 개념처럼 보이는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한다고 가정한다(Feist & Feist, 2008). 본 연구에서도 애정 없는 양육과 과보호, 즉 과잉으로 간섭하고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양육을 부정적인 부모양육방식으로 가정하였다.

오경자와 양윤란(2003)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언하였다. 부모의 양육방식에 자녀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해 변질될 수 있는 가족 내 역할에 주목하였다. 만약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바뀔 경우 자녀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Bowlby, 1980). 그런 경우는 부모화라는 개념(parentification)으로 설명된다.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부모화이다(Boszormenyi-Nagy & Spark, 1973). 부모화가 자녀의 특성에 의해 발생한다기보다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Martin, 1996). 그런 의미에서 Gardner, Sauber와 Lorandos(2006)는 부모화를 전세대인 부모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빚을 후세대인 자녀가 갚는 형국이라고 표현하며 세대 간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부모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지지하는 것이다.

처음 부모화를 개념화 했던 Boszormenyi-Nagy와 Spark(1973)는 “자녀가 마치 자신의 부모인양 행동하는 관계의 왜곡”을 부모화로 정의하였다. 자녀가 부모처럼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녀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부모화 된 아동이나 청소년은 가족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에 열중할 수 없어 학업성취가 적을 가능성이 크다(Chase, Deming, & Wells, 1998). 게다가 부모화 된 자녀들이 알코

www.kci.go.kr

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Bekir, McLellan, Childress, & Gariti, 1993), 부모화 되면 더 우울해진다는 연구들(최명선, 강지희, 2008; Byng-Hall, 2002)도 있다. 또한 부모화된 자녀는 죄의식과 병리적 자기애 성향이 강하다는 보고도 있다(Wells & Jones, 2000). 지금까지 이와 같은 다양한 부모화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그런데 부모화의 부작용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인 사회성의 문제이다. 성장하면서 부모화가 이루어지면 대인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학습하기 어려워져 건전한 사회관계를 맺기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부모화 된 개인은 대인관계에서 상대에게 지나친 배려 행동을 보여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West와 Keller(1991)는 부모화 된 사람의 역기능적 배려 행동이 대인관계에서 부조화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부모화 된 자녀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가족을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또래들과 어울릴 기회가 적어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데다가 사회성 기술을 습득할 수도 없다(Dawson, 1980).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모화 된 자녀들이 보이는 대인관계에서의 부적응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검증되었다(박현정, 천성문, 주동범, 2011; Jurkovic, Thirkield, & Morrell, 2001; Peris, Goeke-Morey, Cummings, & Emery, 2008). 그리고 부모화 된 자녀는 대인관계에서 열등감이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사회불안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Wells, Glickauf-Hughes, & Jones, 1999; Wells & Jones, 2000).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부모화를 부추기고 부모화가 사회불안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화의 역기능을 연구하고자 하지만, 부모화가 긍정적인 것처럼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 Jones와 Wells(1996)의 연구에서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보다 정상 청소년에게서 부모화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McMahon와 Luthar(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화가 학업성취 수준이나 긍정적 자기개념과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그런데 McMahon와 Luthar는 부모화의 긍정적인 결과는 일시적이라고 해석하며, 부모화 된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보상받으려고 노력한 결과로 높은 학업성취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가족을 돌보는 행동이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 자기개념을 잠시 느끼게 한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조은영과 정태연(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화 된 대학생이 겉으로는 적응적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 소외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삶에 만족스러워하지 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에 의해 부모화가 장기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화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Adler(1956)는 사회성의 발달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의 사회적 관심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성에 영향을 더 미칠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더라도 Adler는 아버지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www.kci.go.kr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방식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분석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양육방식과 부모화 그리고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부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모화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양육태도는 부모화 및 사회불안과 관계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부모화는 사회불안과 관계가 있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부모화가 매개한다.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통해 대학생의 부모양육태도의 하위변인, 부모화 및 사회불안의 하위변인들이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또한 대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방식을 부모화가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지를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한 사립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262명(남성 125명, 여성 13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만 18세에서 27세(M=21.39, SD=2.34)까지 분포되어 있다. 참여자들 중에 2학년이 80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1학년이 77명(29.4%), 3학년이 70명(26.7%), 4학년이 35명(13.4%)이었다. 참여자들은 평균 1.13명(SD=.60)의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가족 수는 4.19명(SD=.79)이었다.

참여자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113명(64.3%), 고등학교 졸업은 126명(48.1%), 중학교 졸업은 10명(3.8%), 초등학교 졸업은 11명(4.2%) 그리고 2명(0.8%)의 학생은 아버지의 학력을 보고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77명(29.4%), 고등학교 졸업은 149명(56.9%), 중학교 졸업은 22명(8.4%), 초등학교 졸업은 12명(4.6%)이었으며, 그리고 2명(0.8%)의 학생은 어머니의 학력을 보고하지 않았다. 가정의 경제사정을 상류로 보고한 학생은 7명(2.7%), 중류 중의 상이 38명(14.5%), 중류 중의 중이 140명(53.4%), 중류 중의 하가 65명(24.8%) 그리고 하류가 12명(4.6%)이었다. 한편 부모와 6개월 이상 별거 경험이 있는 학생이 57명(21.8%)이었다.

측정 도구

부모양육태도.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은 Parker(1979)의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PBI: 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송지영(1992)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문경주와 오경자(2002)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일부 문항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원래 PBI는 성인이 16세까지 성장기에서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을 회고적으로 보고하게 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각 25문항씩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Parker(1979)의 연구와 송지영(1992)의 연구에서는 돌봄(care)과 과보호(over protection)와 같은 2개의 요인구조가 나타났지만, 문경주와 오경자(2002)의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요인구조로 나타나 애정, 과잉간섭, 자율성 존중으로 명명하였

www.kci.go.kr

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 혹은 애정의 문항은 역환산하여 돌봄의 부족, 즉 애정 없는 양육방식으로, 자율성 존중의 문항도 역환산하여 자율성 불인정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간 상관이 낮은 2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애정 없는 양육방식은 11문항, 과잉간섭 5문항 그리고 자율성 불인정 7문항 총 23문항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애정 없는 양육, 과잉간섭, 자율성 불인정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아버지 .85, .76, .77, 어머니 .79, .74, .72였다.

부모화. 대학생의 부모화 수준은 FRS-A(Filial Responsibility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Session과 Jurkovic(1986)이 개발한 부모화 질문지(PQ: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를 Jurkovic, Thirkield및 Morrell(2001)이 다차원 분석을 위해 재구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조은영(2004)이 번안한 것이다. 원래 이 척도는 물리적 부모화(10문항), 정서적 부모화(10문항) 그리고 불공평(10문항)과 같은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목적상 부모화 전체 점수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물리적 부모화는 기능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일을 돕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고, 정서적 부모화는 정서적으로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불공평은 가정 내에서 보살피는 행동에서 주고받음이 공평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낸다. 이 척도는 5점(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사회불안. 본 연구의 대상자가 사회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는 LaGreca(1998)의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를 오경자와 양윤란(2003)이 우리말로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긴장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와 같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간 상관이 낮은 4문항은 제거하고 14문항만 분석에 포함되었다. 각 문항을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어 점수의 범위는 14-7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정도가 심각한 것이다. 오경자와 양윤란(2003)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 두려움(8문항), 새로운 상황 두려움(4문항), 일반적 상황 두려움(2문항) 세 요인으로 나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86, 82, 81이었으며, 전체 척도는 .89였다.

조사 및 분석 절차

설문에 응답하기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이 때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며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음을 알렸다. 통계분석은 IBM SPSS사의 PASW Statistics 18에 의해 실행되었고, 주요 통계분석은 Pearson 적률상관분석과 위계적(hierarchical) 회귀분석이다.

www.kci.go.kr

결 과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부모화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 및 부모화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아버지의 양육방식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나누어서 실행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양육방식과 부모화 그리고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아버지의 애정 없는 양육방식(r=.20, p<.001), 과잉간섭(r=.28, p<.001) 그리고 자율성 불인정(r=.21, p<.001) 모두 부모화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세 가지 양육방식의 합, 즉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방식도 부모화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29, p<.001.

아버지의 애정 없는 양육방식은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r=.21, p<.001. 아버지의 애정 없는 양육방식은 사회불안의 모든 하위변인, 즉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 및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과잉간섭(r=.18, p<.01)과 자율성 불인정(r=.16, p<.05)도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는 관계가 없었다.

한편 대학생의 부모화는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33, p<.001. 부모화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는 관계가 없었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만 부모화와 정정 상관이 있었다.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 없는 양육방식(r=.37, p<.001), 과잉간섭(r=.23, p<.001) 그리고 자율성 불인정(r=.27, p<.001) 모두 부모화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방식보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방식(r=.38, p<.001)이 부모화와 더 많은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애정 없는 양육방식도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r=.19, p<.01. 어머니의 과잉간섭도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r=.20, p<.01. 어머니의 애정 없는 양육방식과 과잉간섭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는 관계가 없었

표 1.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방식, 부모화 및 사회불안 간의 상관행렬(N=262)

변인	아버지 애정 없는 양육	아버지 과잉간섭	아버지 자율성 불인정	아버지 부정적 양육방식	부모화	*M*	*SD*
부모화	.20***	.28***	.21***	.29***			
부정 평가 두려움	.21***	.19**	.16*	.25***	.37***	17.11	5.75
새 상황 두려움	.14*	.05	.06	.12	.10	10.84	3.38
일반적 상황 두려움	.15*	.26***	.21***	.25***	.38***	4.01	1.80
사회불안	.21***	.18**	.16*	.24***	.33***	31.96	9.44
M	22.41	9.60	13.42	45.45	48.16		
SD	6.18	3.25	3.88	10.24	10.59		

* p<.05, ** p<.01, *** p<.001.

www.kci.go.kr

다. 어머니의 자율성 불인정도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r=.23, p<.01), 사회 불안의 모든 하위변인, 즉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 및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부모화가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부모양육방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모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부정적인 부모양육방식(A)이 사회불안(C)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부모화(B)가 사회불안(C)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며, 독립적으로 A와 B의 교차항도 대학생의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A와 B의 상관이 유의하였기 때문에 중재보다는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모화가 매개효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였다(표 3). 회귀분석에서 부모화가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매개하여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방식(A_1 → C)의 설명량보다 A_1, B → C에서 A_1의 추가 설명량이 2.4%로 줄었고 부모화(B)의 추가 설명력도 유의하였다, β =.29, p<.001. A_1, B → C에서의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방식의 설명량이 줄어들었어도 유의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사회불안 사이를 부모화가 부분적으

표 2.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부모화 및 사회불안 간의 상관행렬(N=262)

변인	어머니 애정 없는 양육	어머니 과잉간섭	어머니 자율성 불인정	어머니 부정적 양육방식
부모화	.37***	.23***	.27***	.38***
부정 평가 두려움	.21***	.18**	.22***	.26***
새 상황 두려움	.08	.11	.14*	.13*
일반적 상황 두려움	.19**	.24***	.26***	.28***
사회불안	.19**	.20**	.23***	.26***
M	20.20	13.26	10.76	44.22
SD	5.24	3.70	3.53	9.89

* p<.05, ** p<.01, *** p<.001.

표 3. 지각된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사회불안에 대한 부모화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ΔR^2	β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방식(A_1)	부모화(B)	.081		.29***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방식(A_1)	사회불안(C)	.059		.24***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방식(A_1) 부모화(B)	사회불안(C)	.136	.024 .077	.16** .29***

**p<.01, ***p<.001.

www.kci.go.kr

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Baron & Kenny, 1986).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부모화가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도 부모화가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지도 검증하고자 하였다(표 4).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부모화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며, 독립적으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부모화의 교차항도 대학생의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부모화의 상관이 유의하였기 때문에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화는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사회불안 사이에서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방식(A_2 → C)의 설명량보다 A_2, B → C에서 A_2의 추가 설명량이 2.1%로 줄었고 부모화(B)의 추가 설명력도 유의하였다, β=.28, p<.001.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사회불안 사이도 부모화가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부모화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화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의 탐색하였으며, 부정적 부모양육방식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의 부모화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먼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은 사회불안과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서경현 외 2008; 허재홍, 2006; 허재홍, 조용래, 2005; Bruch et al., 1989)의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런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고 애정 없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가 성장하여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워할 것이라는 개인심리학의 가설(Adler, 1927)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은 사회불안 하위 요인 중에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고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가 있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로 하여금 특정한 사회관계가 아닌 전반적인 사회적 상황에 더 취약하게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임상가로서 한 개인이 사회관계 전반에서 나타내는

표 4. 지각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사회불안에 대한 부모화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ΔR^2	β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방식(A_2)	부모화(B)	.142		.38***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방식(A_2)	사회불안(C)	.066		.26***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방식(A_2)	사회불안(C)	.133	.021	.15*
부모화(B)			.067	.28***

*p<.05, ***p<.001.

www.kci.go.kr

불안을 중재할 때 부모의 양육방식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부모양육방식이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상관이 있었던 것은 성장기에 부모의 애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불신하는 태도를 보여 자녀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가 좋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것일 수 있다. Adler(1927)는 부모로부터 애정을 못 받은 아동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는 부모로부터 애정을 못 받고 방임된 아동은 살아가면서 작은 어려움을 겪어도 자신감을 잃고 쉽게 포기하며, 타인을 믿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꺼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였다(Feist & Feist, 2008). 그렇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 없는 양육이나 과잉간섭 혹은 자율성 불인정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같은 자기개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신의 평가할만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그런 부정적인 부모양육방식과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Adler는 부모로부터 애정을 못 받고 방임된 자녀는 심할 경우 성장하여 타인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Feist & Feist, 2008)고 하였다. 그가 표현한 부작용의 증상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과 유사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양육방식이나 어머니의 양육방식 모두 사회불안 하위변인들과의 관계의 양상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사회불안과 공유하는 변량의 크기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Adler(1956)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사회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Adler는 어머니가 자기 자신의 욕구 충족이 아닌 자녀의 안녕을 위해 진심어린 애정을 가지고 양육해야 자녀의 사회성이 적절히 발달하여 성장 후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dler는 어머니가 자녀는 물론 다른 가족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의 건강한 사회성이 발달한다고 생각하였다. Adler는 만약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일에만 몰두하고 남편은 뒷전으로 한다면 자녀가 과보호하여 자녀가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자로 변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반대로 자녀보다 남편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 자녀는 자신이 무시되고 있다는 느낌 혹은 방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사회성을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한다고 하였다. Adler도 아버지의 양육방식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반드시 Adler의 주장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Adler는 자녀의 사회성을 제대로 발달시키려면 아버지가 가족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아버지가 자녀의 자율성을 불인정하는 방식으로 양육하면 자녀가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사회성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서경현, 신현진과 문지영(2010)의 연구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보호와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않는 양육태도는 사회불안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

www.kci.go.kr

도, 즉 애정 없는 양육 및 자율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잉 간섭하는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부모화 간에 정적 관계가 발견되었다. 부모화가 부모의 문제가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Gardner et al., 2006), 이 연구는 그런 부모화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의 문제가 전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아버지의 양육방식보다 자녀의 부모화에 대한 설명력이 더 컸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가족원을 돌보는 행동을 더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부모화 행동에 가정 내에서의 가사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주로 어머니가 가족으로 위해 하는 행동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부모화가 사회불안과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부모의 양육방식보다도 사회불안에 대한 설명력이 더 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사회불안 하위요인 중에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고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일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가 있었던 것도 부모화가 개인의 자존감이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른 학자들(Wells et al., 1999; Wells & Jones, 2000)도 부모화가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추후연구에서는 부모화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열등감이나 수치심 및 자존감과 같은 자기개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화가 일반적 사회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가 있었던 것은 부모화가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화 행동이 획득되면서는 표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수 있다(McMahon & Luthar, 2007). 그러나 Jurkovic, Jessee와 Goglia(1991)는 부모화의 침투적 효과가 개인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Chase 등(1998)은 부모화를 단순히 부모의 부재에서 생긴 공백의 영향이라기보다 복잡한 정서적 현상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연구는 그런 부작용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화가 부정적인 부모양육방식을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방식뿐 아니라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도 자녀가 부모화 되게 하고 그렇게 부모화 된 자녀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부모양육방식과 자녀의 사회불안이나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간의 관계는 여러 연구들에서 입증되었지만, 그 관계를 부모화가 매개한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다. 따라서 학교나 임상장면에서 부모로부터 부정적으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평가되면 부모화 행동과 그 부작용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

부모양육방식과 부모화 그리고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 검증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정적인 부모양육방식은 실제 부모의

www.kci.go.kr

양육방식이 아닌 연구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다. 그렇다고 실제 부모의 양육방식을 변인으로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심리학에서도 개인이 실제 경험한 과거의 상황보다 현재 지각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인식이 삶에서 더 의미 있다고 설명한다(Feist & Feist, 2008). 둘째,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부정적 부모양육방식 요인 외에도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부모양육 요인들이 포함된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견한 부정적인 부모양육방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의 부모화의 매개효과는 정신건강전문가와 후속 연구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 고 문 헌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29-43.

박현정, 천성문, 주동범 (2011). 중학생의 부모화 경향성과 부모양육태도 지각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직업교육연구, 30(2), 35-49.

서경현 (2012).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아동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 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9(1), 207-226.

서경현, 신현진, 문지영 (2010). 부모의 과보호와 아동의 사회불안. 스트레스 연구, 18(1), 19-27.

서경현, 유제민, 안경미 (2008). 초등학생 사회불안의 예측 모형: 행동억제, 부모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 675-693.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 979-991.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557-576.

조은영 (2004). 부모화 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은영, 정태연 (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 43-62.

최명선, 강지희 (2008).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 43-53.

허재홍 (2006). 부모양육태도, 완벽주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 593-611.

허재홍, 조용래 (2005). 자기불일치와 사회불안이 대학생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5(2), 85-100.

Adler, A. (1927). *Understanding Human Nature*. NY: Greenburg Pub., Inc., Translation of lectures by Adler in Vienna in 1926.

Adler, A. (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H. L. Ansbacher and R. R. Ansbacher (Eds.). New York: Harper Torchbooks.

Adler, A. (1964). *Superiority and Social Interest: A Collection of Later Writings*. H. L. Ansbacher and R. R. Ansbacher (Eds.).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Albano, A. M., & Detweiler, M. F. (2001). The Developmental and Clinical Impact of Social Anxiety and Social Phobia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Hofmann, S.G. and DiBartolo, P.M. (Eds). From *Social Anxiety to Social Phobia: Multiple Perspectives*. New York:

www.kci.go.kr

Allyn & Bac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rrindell, W. A., Kwee, M. G. T., Methorst, G. J., Van Der Ende, J., Pole, E., & Moritiz, B. J. M. (1989).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of agoraphobic and socially phobic impati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5,* 526-535.

Baron, R. M.,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ekir, P., McLellan, T., Childress, A. R., & Gariti, P. (1993). Role reversals in families of substance abusers: A transgenerational phenomen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8(6),* 613-630.

Boszormenyi-Nagy, I., & Spark, G.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Bowlby, J. (1980). *Loss: Sadness & Depression. Attachment and Loss* (vol. 3); (International psycho-analytical library no.109). London: Hogarth Press.

Bruch, M. A., & Heimberg, R. G. (1994).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between generalized and nongeneralized social phobic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8,* 155-168.

Bruch, M. A., Heimberg, R. G., Berger, P., & Collins, T. M. (1989). Social phobia and perceptions of early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xiety Research, 2,* 57-63.

Byng-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 in families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Family Process, 41,* 375-388.

Chase, N. D., Deming, M. P., & Wells, M. C. (1998). Parentification, parental alcoholism, and academic status among young adult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2),* 105-114.

Dawson, F. (1980). *The parental child in single and dual parent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eorgia State University, Atlanta.

Feist, J., & Feist G. J. (2008). *Theories of Personalty (7ed.).* NY: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Gardner, R. A., Sauber, S. R., Lorandos, D. (2006).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Parental Alienation Syndrome: Conceptual, Clinical And Legal Considerations.*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LTD.

Goleman, D. (2006). *Social Intelligence: The New Science of Human Relationships.* Bantam Books.

Hullu, de E., Jong, de P. J., Nauta, M. H., & Sportel, B. E. (2011). Co-occurrence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in adolescence. *Psychological Medicine, 42*, 475-484.

Jones, R., & Wells, M. (1996). An empirical study of parentification and personalit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4*, 145-152.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of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2),* 245-257.

LaGreca, A. M. (1998). *Manual for the social anxiety scal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Miami, FL: Author.

Last, C. G., Hersen, M., Kazdin, A. E., Orvaschel, H., & Perrin, S. (1991).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 928-934.

www.kci.go.kr

Martin, M T. (1996). Mother‐daughter relations in divorced families: Parentification and internalizing and relationship problem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The Sciences & Engineering., 56,* 5176.

McMahon, T. J., & Luthar, S. S. (2007).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 consequences of caretaking burden among children living in urban pover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 267‐281.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a and social phobia.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5-560.

Peris, T. S., Goeke-Morey, M. C, Cummings, E. M., & Emery, R. E. (2008). Marital conflict and support seeking by parents in adolescence: Empirical support for the parentification construc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 633-642.

Romanczyk, R. G., White, S., & Gillis, J. M. (2005). Social Skills Versus Skilled Social Behavior: A Problematic Distinction in Autism Spectrum Disorders. *JEIBI, 2*(3), 177-194.

Sessions, M. W., & Jurkovic, G. J. (1986). *The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Available from Gregory J. Jurkovic, Dep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GA, Atlanta: University Plaza.

Stein, M. B., Walker, J. R., & Forde, D. R. (1996). Public speaking fears I a community sample: Prevalence impact on functioning and diagnostic classif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169-174.

Wells, M., & Jones, R.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 19-27.

Wells, M., Glickauf-Hughes, C., & Jones, R. (1999). Codependency: A grass roots construct's relationship to shame-proneness, low self-esteem, and childhood paren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7,* 63-71.

West, M. L., & Keller, A. E. (1991). Parentification of the child: A case study of Bowlby's compulsive care-giving attachment pattern.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5,* 425-431.

원고접수일: 2013년 1월 10일
게재결정일: 2013년 2월 1일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3. Vol. 18, No. 1, 203 - 217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fication on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s and Social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Yang-Seon Cho Sol Son Kyung-Hyun Suh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s, parentification, and social anxiety. In addition, researchers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fication on negative parental rearing styles and social anxiety. The participants were 262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hose ages ranged from 18 years to 28 years of age. The psychological tests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d the following: Parker's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and LaGrea's Social Anxiety Scale. The correlational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negative rearing styles of both parent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ocial anxiety of college students. However, parental rearing styl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fear of others' evaluation and fear of general social situation among factors of social anxiety. And, perceived negative parental rearing styles were also positively correlated with parentification, while parentific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anxiety.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and fear of new social situation. It was found that parentification was partially mediating negative parental rearing styles and social anxiety. Results of this study were interpreted with previous studies and the Adler's theory of individual psychology about roles of parents in sociability.

Keywords: parental rearing styles, parentification, sociability, social anxiety

www.kci.go.kr